

#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 고찰

김미선\*

## ■ 차례 ■

1. 머리말
2. 수집된 정보의 치밀한 기록
3. 비극적 경험의 절제된 묘사
4. 감정표출 방법으로써 시의 활용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먼저 수집된 정보를 치밀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항은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에 일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았는데, 이는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치밀한 기록으로 인해 『간양록』은 조선후기 실학자 등 문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다음으로 비극적 경험을 절제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항은 일본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록한 반면, 본인이 겪은 비극적 경험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긴 채 절제하여 묘사한다. 일기체로 쓴 개인적인 글인 「섭란사적」에서 조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차 감정을 절제하여,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황만 묘사할 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절제된 묘사를 통해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을 애절하게 느낄 수 있다. 절제된 표현 뒤에 남은 오랜 여운은 『간양록』만의 묘미가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표출 방법으로써 시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양록』 소개 다섯 편의 글 중 「섭란사적」에만 31수의 시가 실려 있다. 자식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감정 표현을 억제했던 강항은 시에서 만큼은 슬픔, 그리움, 기쁨,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여, 시를 통해 또 다른 문학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 주제어

강항, 『간양록』, 표현적 특징, 치밀한 기록, 비극적 경험, 절제된 묘사

## 1. 머리말

睡隱 姜沆(1567~1618)의 『看羊錄』은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597년에 피랍되어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하다가 1600년 5월에 부산으로 돌아온 경험이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 「涉亂事迹」 등 다섯 편의 글로 작성되어 있다. 이 『간양록』은 강항의 문인인 童士 尹舜舉(1596~1668)가 1658년에 간행한 『睡隱集』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수은집』에는 180제의 시를 비롯하여 賦, 上疏, 呈文, 序, 記, 書, 雜著 등 다양한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sup>1)</sup> 이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이 바로 『간양록』이다.

1) 『수은집』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및 ‘호남 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co.kr/>)’의 <수은집 해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양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학, 역사학, 서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있어 왔지만,<sup>2)</sup> 문학적 연구에 있어서 전쟁 체험

- 2) 김명식, 『看羊錄 研究 - 戰爭文學的 觀點에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박균섭, 『看羊錄에 나타난 日本教育文化의 斷片』, 『논문집』28, 청주교육대학교, 1991 ; 이채연, 『‘看羊錄’의 實記文學的 特徵』, 『한국문학논총』13, 한국문학회, 1992 ; 변동명, 『姜沆의 筆寫本 ‘看羊錄’ 考察-靈光 內山書院 所藏本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 송일기·안현주, 『睡隱 姜沆 編撰 ‘看羊錄’의 校勘 研究』, 『서지학보』38, 한국서지학회, 2009 ; 신현승, 『17세기 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 -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 『일본사상』17, 한국일본사상학회, 2009 ; 이희재, 『강항이 본 일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15,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09 ; 정충권, 『‘看羊錄’의 被虜 체험 글쓰기와 그 문학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임치균, 『‘看羊錄’ 연구 - 사실 제와 체험의 형상화 -』, 『정신문화연구』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 방기철, 『睡隱 姜沆의 일본인식』, 『한국사상과문화』5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이 외에도 『간양록』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수는 강항 및 『간양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다.

- 松田甲, 『藤原惺窩と姜睡隱の關係』, 『韓日關係史研究』, 朝鮮總督府, 1929 ; 阿部吉雄, 『藤原惺窩の儒學と朝鮮 - 姜沆の彙抄十六種の新調査にちなんで -』, 『朝鮮學報』12, 朝鮮學會, 1958 ; 김기민, 『睡隱 姜沆 研究 - 愛國思想과 文學世界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민호, 『壬辰倭亂期 姜沆의 賊中生活과 日本儒學』, 『학술논총』9,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5 ;姜在彦, 『江戶儒學と姜沆』, 『일본학』1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 ; 박균섭, 『姜沆이 日本 朱子學에 끼친 影響』, 『일본학보』37, 한국일본학회, 1996 ; 福田植, 『姜沆과 藤原星窩』, 『퇴계학논총』4, 퇴계학부산연구원, 1998 ; 이동희, 『睡隱 姜沆의 愛國精神과 日本에의 朱子學 전파』, 『유학사상연구』12, 한국유학학회, 1999 ; 김동준, 『睡隱 姜沆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8, 한국한시학회, 2003 ; 최대우·안동교, 『姜沆의 衛道정신과 일본에서 유학전수』, 『호남문화연구』38,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 桂島音弘, 『姜沆と藤原惺窩 - 十七世紀の日韓相互認識 -』, 『전북사학』34, 전북사학회, 2009 ; 김선희, 『일본 주자학연구에 대한 一考察-姜沆 연구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30, 동아시아일본학회, 2009 ; 박세인, 『睡隱 姜沆의 시문학 연구 - 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세인, 『睡隱 姜沆과 17세기 초 호남 문학의 일면』,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 이해준, 『睡隱 姜沆과 內山書院의 문화콘텐츠 활용』,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 김경옥, 『수는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 박맹수, 『수는 강항이 일본 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 -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의 사실적 서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자 또한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를 연구하면서 『간양록』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sup>3)</sup> 그리하여 『간양록』의 구성 방식, 노정에 따른 서술 방법, 『간양록』에 반영된 작자의식, 『간양록』을 비롯한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의 내용적 특징 등을 살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에서 魯認(1566~1622)의 『錦溪日記』, 鄭希得(1575~1640)의 『月峯海上錄』 등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경험을 기록한 다른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와 차별성에 집중하였다. 작자별 노정, 그에 따른 서술 방법, 피랍 당시 상황에 따른 작자 의식을 통해 다른 작품과의 차별적인 특징을 살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장 오랜 시간 일본에 머무르고 일본에서 두 차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던 강항의 노정은 일본 억류생활이 중심이 되었고, 『간양록』은 ‘노정의 요약적 체서’, ‘疏, 錄 등으로 견문 체계적 기술’이라는 서술 방법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피랍 당시 관직에 있었던 강항이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작품에 반영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의병활동 중 피랍되었다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노인, 관직에 오르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귀환 중 대마도에 재역류 되었고 국내에서도 고통스런 노정을 겪었던 정희득

---

관계를 중심으로 -,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 오종일, 「姜沆의 충절정신과 儒學의 對倭 傳授로 본 그 위상」, 『공자학』22, 한국공자학회, 2012 ; 동양문헌학회, 『수은 강항선생의 학문과 사상』, 서남기획, 2014.

3) 김미선, 「『看羊錄』의 여정에 따른 서술 방법」, 『도서문화』3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1, 147-177쪽 ;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8-60쪽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43-72, 149-157쪽.

과의 차별성에 집중한 분석이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오롯이 『간양록』에 담긴 다섯 편의 글의 표현적 특징<sup>4)</sup>을 수집된 정보의 치밀한 기록, 비극적 경험의 절제된 묘사, 감정표출 방법으로써 시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양록』의 문학적 가치 및 특징을 재조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수집된 정보의 치밀한 기록

임진왜란기에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억류 생활 후 조선으로 돌아온 수천 명의 사람 중 해외체험 포로실기를 남긴 사람은 강항 외에도 4명이 더 있다. 호남의 문인인 魯認(1566~1622), 鄭慶得(1569~1630), 鄭希得(1575~1640), 鄭好仁(1579~?)으로, 이들은 각각 포로 체험을 기록한 『錦溪日記』, 『萬死錄』, 『月峯海上錄』, 『丁酉避亂記』를 남겼다.

『간양록』은 疏, 錄, 檄文, 啓辭, 日記 등 다섯 가지 문체로 작성되어, 일기만으로 이루어진 『금계일기』, 일기와 시를 중심으로 한 『월봉해상록』 등과 구분 된다. 그 중 疏와 錄인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은 『간양록』의 다섯 문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대한

4) 앞선 연구에서 서술 방법이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음'이라는 '서술'의 사전적 정의처럼 시간성, 곧 노정을 바탕에 둔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이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시간성을 배제하고 『간양록』의 전반적인 표현 자체를 살펴본 것이다.

정보를 담고 있다.

강항은 2년 반 가량의 긴 시간을 일본에 머물렀고, 두 번의 이송으로 일본의 다양한 곳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 伊豫州 大津城에 유치되었다가, 후에 攝津州 大坂城과 山城州 伏見城으로 이송되었다. 두 번의 이송은, 이송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강항은 이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강항은 복견성에서 승려 舜首座와 순수좌의 후원자이자 문인인 赤松廣通을 만나 그들에게 주자학을 전했으며,<sup>5)</sup> 자신은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본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었는데, 아래와 같은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하는 강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① 金山 出石寺의 중 好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못 문자를 해독하였습니다. 신을 보고 슬프게 여겨 예우가 남보다 더했으며, 따라서 신에게 그 나라 題判(관청에서 백성이 올린 訴狀에 쓰는 판결)을 보여 주었는데, 方輿와 職官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기에 신이 곧 등사하였습니다. 또 좌도의 아버지 白雲이 매우 상세한 그 나라 輿圖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통역을 시켜 모사해 내고, 다시 눈으로 본 현실의 형세를 우리나라의 방어책과 비교해 보았으며, 간혹 어리석은 신

5) 강항은 釋奠祭 등 유교의 의례를 전파했고, 사서오경 등 유교의 경전을 필사하였다. 강항의 주자학 전파에 대해서는 박근섭의 논문 「姜沆이 日本 朱子學에 끼친 影響」(『일본학보』37, 한국일본학회, 1996, 257-263쪽), 이동희의 논문 「睡隱 姜沆의 愛國精神과 日本에의 朱子學 전파」(『유학사상연구』12, 한국유교학회, 1999, 192-205쪽), 최대우·안동교의 논문 「姜沆의 衛道정신과 일본에서 유학전수」(『호남문화연구』38,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212-224쪽), 박명수의 논문 「수는 강항이 일본 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 -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50-57쪽) 등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의 천에 하나나 맞을는지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사이에 논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sup>6)</sup>

- ② 倭僧의 기록이 간혹 문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으나, 본문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실상을 잃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모두 舊本에 의해 등초하고, 諸州의 말미에 다시 새로 듣고 본 것을 부록하여 참고에 편리하게 하였음.<sup>7)</sup>

①은 「적중봉소」의 일부로, 출석사의 중 호인이 일본의 제판을 보여 주었는데 일본의 方輿와 職官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기에, 강항이 그것을 등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좌도는 강항이 처음 유치되었던 伊豫州 大津縣의 주인이다. 그의 아버지가 일본의 輿圖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강항이 통역을 시켜 모사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적중문견록」의 <왜국팔도육십육주도> 제목의 註이다. <왜국팔도육십육주도>는 일본의 8도 66주 및 일기도, 대마도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글이다. 각 주별로 관할 군, 지역의 크기, 주요 산물, 등급 등이 설명되어있고, 강항이 일본에 있던 당시의 상황을 註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 있으면서 임진왜란 때 길잡이 노릇을 하였던 대마도에 대해서는 특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②를 통해 일본 승려의 기록을 모두 등초한 것이 <왜국팔

6) 有金山出石寺僧好仁者，頗解文字。見臣哀之，禮貌有加，因示臣以其國題判，別方輿職官，該錄無餘，臣旋則謄寫。又聞佐渡之父白雲，有其國輿圖甚詳，備人舌人模出，復以目擊之形勢，較我國防禦之長算，而問以愚者之千慮，竊議於其間。 - 姜沆, 『看羊錄』, 「賊中封疏」  
본 논문에서 인용한 국역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국역해행총제》를 참조하였다. 『간양록』(《국역해행총제》Ⅱ, 민족문화추진회, 1974)은 신호열이 번역하였고, 『월봉해상록』(《국역해행총제》Ⅷ, 민족문화추진회, 1977)은 이상형·김달진이 번역하였다.

7) 倭僧所錄，或不成文理，而不依本文，則慮其失實，故並依舊本謄錄，而諸州之末更附新所聞見，以便參考。 - 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도육십육주도>의 바탕이 되었고, 여기에 강항이 새로 듣고 본 것을 추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이라는 일본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다. 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중봉소」 및 「적중문견록」의 구성과 내용<sup>8)</sup>

구분	구성	내 용
적중 봉소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란 상황, 피랍과 일본 이송 / 일본 생활과 탈출 시도</li> <li>- 제판 등사 및 여도 모사 과정 / 글을 쓰는 이유</li> <li>- 죽지 않는 이유</li> </ul>
	倭國八道六十六州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일본 도움 / 천황의 권위와 적괴의 악행</li> <li>- 진시황 때 서북이 일본에 온 일 / 일본의 언문과 문자</li> <li>- 흥법사 지도의 기록 / 일본이 조선보다 작다는 선입견</li> <li>- 청정 등의 귀신 숭상 비판 / 전쟁에 참여한 일본의 지역</li> <li>- 임진년, 정유년 전쟁에 참여한 군사 수 및 장군 이름</li> <li>- 왜인 안국사, 태장로 / 일본 군사제도 설명 및 이점</li> <li>- 조선 군사제도 설명 및 문제점 / 관리 등용책 및 상벌 계획</li> <li>- 호남 영남 진 설치 계획 / 군사 훈련 및 군량 지킬 계획</li> <li>- 조선 바닷가 가림주구 및 계획 / 대마도의 술수</li> <li>- 왜 성읍의 장점 및 성읍 계획 / 바닷가 진보의 폐단 및 계획</li> <li>- 호칭, 검 숭상, 힘 숭상 등 일본 풍속 / 조선 침범 원인</li> <li>- 두 적장의 사이가 안 좋음 / 일본의 농민</li> <li>- 일본의 군사 복장 / 항복한 왜인을 죽이는 문제점 및 계획</li> <li>- 수길의 죽음과 현재 일본 정세 / 일본에 대항하는 세 가지 계획</li> <li>- 포로 이엽의 일화 /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li> <li>- 조선에 대한 일본 장수들의 태도</li> </ul>

8)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59-61쪽.



적중 문건 록	倭國百 官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왕 천자에 대한 간략 설명</li> <li>- 관직 이름 나열</li> <li>- 직무를 맡은 사람의 시대적 변화</li> </ul>
	倭國八 道六十 六州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에 대한 설명</li> <li>-畿內五國：山城, 太和, 河內, 和泉, 攝津</li> <li>-東海道十五國：伊賀, 伊勢, 志摩, 尾張, 參河, 遠江, 駿河, 伊豆, 甲斐, 相模, 武藏, 安房, 上總, 下總, 常陸</li> <li>-東山道八國：近江, 美濃, 飛彈, 信濃, 上野, 下野, 陸奥, 出羽</li> <li>-北陸道七國：若狹, 加賀, 越前, 越中, 越後, 能登, 佐渡</li> <li>-山陰道八國：丹波, 丹後, 但馬, 因幡, 伯耆, 出雲, 石見, 隱岐</li> <li>-山陽道八國：播磨, 美作, 備前, 備中, 備後, 安藝, 周防, 長門</li> <li>-南海道六國：紀伊, 淡路, 阿波, 讚岐, 伊豫, 土佐</li> <li>-西海道九國：筑前, 筑後, 豐前, 豐後, 肥前, 肥後, 日向, 大隅, 薩摩</li> <li>-壹岐, 對馬</li> </ul>
	壬辰丁 酉入寇 諸將倭 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별 설명：家康, 輝元, 前田肥前守, 景勝, 政宗, 佐竹, 最上, 筑前中納言金吾, 備前中納言豐秀家, 義弘</li> <li>- 나머지 왜장 이름</li> <li>- 풍신수길 관련 설명：출생, 전쟁 참여 일화, 수길의 성격, 궁실 짓는 과정, 양자를 죽이는 과정, 코 무덤, 사후에 대한 대비 등</li> <li>- 수길 사후 일본 상황：수길의 무덤, 장수들의 다툼, 가강 추대 등</li> <li>-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li> <li>- 北을 중시하는 조선의 폐단 및 계책</li> <li>- 왜승 순수좌 및 좌도와의 교류</li> <li>- 귀국을 청하고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과정</li> </ul>

이렇게 강항이 치밀하게 일본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던 것은 관직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연관된다. 피랍되기 전 종사관으로서 군량 운반과 의병 모집 임무를 맡았었던 강항은 신하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정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적중봉소」는 실제 일본에 있는 동안 조선으로 전해졌고, 「적중문견록」도 부산에 당도한 직후 조정에 올려졌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정보는 부산에서 한양으로 올라간 후에 올린 「예승정원계사」에 실려 있다.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왜경을 떠날 때 순수좌가 한 말, 대마도에서 만난 대마도주 평조신과의 대화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포로들에게 당부하는 글인 「고부인격」은 『간양록』의 다섯 문체 중 가장 짧은 글로 포로들에게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고 힘을 모으라고 당부한다. 일본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이 글을 그대로 옮겨 적어 조선으로 가져온 것에서도 강항의 치밀성을 엿볼 수 있다.

강항은 「적중봉소」에서 조정이 일본의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를 첫째, ‘만 리 경해의 밖이고 구중 궁궐의 안’이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둘째, 사신이 내왕해도 오고 가기가 바쁘고 경계와 금제가 엄밀하기 때문에, 셋째,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하천배의 무리가 많아 듣고 본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세 가지를 들었다.<sup>9)</sup> 양반 지식인으로서 일본 안에 2년 여의 시간을 머무르면서 일본인과 교류를 하였던 강항은 앞선 세 가지를 모두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강항이 아니더라도 양반 지식인으로서 일본에 피랍되었다 돌아온 인물은 많았다. 『금계일기』를 남긴 노인이 그러하고, 『월봉해상록』을 남긴 정희득 일가 또한 양반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강항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정보를 치밀하게 기록하여 일본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9) 김미선, 위의 책, 150-151쪽.

강항의 『간양록』은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혀졌다. 『간양록』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널리 보급되어 영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규장각 소장 『海東地圖』에도 이 지도가 그대로 모사되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도첩에 수록되어 있다.<sup>10)</sup> 李瀾(1681~1763), 安鼎福(1712~1791), 李德懋(1741~1793), 丁若鏞(1762~1836) 등의 실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서에서 『간양록』의 기록을 근거로 삼기도 하였고, 申維翰(1681~1752)과 趙曦(1719~1777)은 통신사로서 일본에 사행을 다녀온 기록인 『海游錄』, 『海槎日記』에서 『간양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 강항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를 남긴 노인·정희득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문헌을 간행할 때에도 강항 『간양록』은 언급된다. 1823년에 간행된 노인의 『금계집』에는 『간양록』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1846년 간행된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서문에서 후손들은 『간양록』만 알려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필사된 이본들이 전해지는 것도 『간양록』의 인기를 증명하는데, 내산서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필사본에는 「섭란사적」 등 개인적인 부분이 빠지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부분만이 전해지고 있다.<sup>11)</sup> 이는 조선후기 문인들이 『간양록』 중 일본에 대한 정보 부분에 집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간양록』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읽힌 것은 일본에 대한 정보가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10) 오상학,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대한지리학회지』38, 대한지리학회, 2003, 37쪽.

11) 『간양록』의 필사본에 대해서는 임치균의 논문 「『看羊錄』 연구 -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정신문화연구』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10-114쪽) 참조.

### 3. 비극적 경험의 절제된 묘사

강항은 일본에 대한 정보는 치밀하게 기록한 반면, 본인이 겪은 비극적 경험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긴 채 절제하여 묘사한다. 조정에 올린 글인 「적중봉소」, 「적중문견록」은 공식적인 글이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쓰지 않는게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일기체로 쓴 개인적인 글인 「섭란사적」에서조차 감정을 절제한다.

당시 31세의 나이로 어린 아이의 부모였던 강항에게 가장 큰 비극은 자식의 죽음이었을 것이다. 「섭란사적」을 살펴보면 강항에게는 피란 당시 6살 난 딸과 돌이 안 된 어린 아들 龍, 첩이 낳은 딸 愛生이 있었다. 배로 피란을 떠났던 강항 일행은 왜적의 배를 만나자 바다로 뛰어내렸고, 왜적에 의해 배로 끌어올려졌다. 이 때 바닷가에 내려놓여 졌던 용과 애생은 부모와 함께 배에 타지 못하고 바닷물에 떠내려가 죽게 된다. 다음은 그 아이들이 죽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어린아이 龍과 첩의 소생 딸 愛生을 모래 밭에 남겨 두었는데, 조수가 밀려 떠내려가느라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한참만에야 끊어졌다. 나는 나이가 30세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태몽에 새끼 용이 물 위에 뜬 것을 보았으므로 드디어 이름을 용이라 지었던 것이다. 누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생각했겠는가? 浮生의 온갖 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sup>12)</sup>

12) 稚子龍及妾女愛生，遺置沙際，潮回浮出，呱呱滿耳，良久而絕。余年三十，始得此兒，方娠夢見兒龍浮水中，遂以爲名。孰謂其死於水中也。浮生萬事莫不前定，而人自不悟矣。 -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강항은 모래밭에 놓아두었던 두 아이가 죽는 과정을 ‘潮回浮出，呱呱滿耳，良久而絕’이라는 12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조수가 밀려 떠내려가느라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한참만에야 끊어졌다.’는 이 짧은 글에는 어떠한 감정도 들어있지 않고 사실 설명만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꿈에 새끼 용이 물 위에 뜬 것을 보고 용이라 이름 지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을 보니 세상의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보다 라는 소회만 말했을 뿐, 가슴이 아프다던가,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피랍될 당시 강항의 형제들에게는 모두 여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중 강항의 자식인 용과 애생이 피랍 과정에서 바닷물에 떠내려가 죽고, 중형의 여덟 살 난 아들 可憐이 일본으로 이송 중 병이 났다는 이유로 바닷물에 던져져서 죽는다. 그리고 숙형의 딸 禮嬪과 중형의 아들 可喜가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병으로 죽는다. 다음은 「섭란사적」에서 조카들의 죽음을 묘사한 부분이다.

- ① 중형의 아들 可憐은 나이가 여덟 살인데 주리고 목말라서 짠 소금국을 마시고 구토설사하여 병이 나자 적이 물 속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아이야 아버지를 바라지 말라’라는 옛말이 참말이 되었다.<sup>13)</sup>
- ② 5일 叔兄의 딸 禮嬪이 병사했다. 9일 중형의 아들 可喜도 병사했다. 그래서 형제가 짊어지고 나가서 물가에 매장했다. 우리 형제의 자녀 여섯 명 중에 세 명은 바다에 빠져 죽었고 두 명은 왜의 땅에 죽었고 어린 딸 하나만이 남았을 뿐이니, 정히 山斗(韓愈를 이름)의 이른바, “무고한 너를 죽게 만든 것이 오직 나의 죄라 / 백년토록 부끄럽고

13) 仲兄子可憐者，年八歲，飢渴飲鹹，嘔泄成病，賊抱投水中，呼爺之聲，久而不絕，兒兮莫望父信矣。 -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원통해서 눈물 흐른다”는 것과 같았다. 가련하고 슬퍼서, 도리어 그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다.<sup>14)</sup>

①에서는 중형의 여덟 살 난 아들이 병이 나자 왜적들이 바닷 물에 던져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 끊어지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강항의 자식들인 용과 애생이 죽을 때와 비슷한 표현으로, 죽을 때의 상황을 설명한 후 어떠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②에서는 일본에 억류된 당시 조카들이 4일 간격으로 죽은 일을 설명하고 있다. 조카들의 죽음을 ‘病死’라는 단 두 글자로 표현하고, 다섯 아이의 죽음을 설명한 후에 최산두의 시를 인용하여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傷憐’이라는 두 글자로 가련하고 슬프다고 간략히 표현한 후 마지막은 죽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부럽다는 말로 끝맺는다. 어린 자식들의 죽음에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강항이 『간양록』에서 이렇게 비극적 경험을 절제하여 묘사한 것은 포로체험 당시의 신분과 연관이 된다. 정희득이 관직에 있지 않은 평범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했다면, 관직에 있었던 강항은 신하로서의 의무감이 있었다. 정희득은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지만, 강항은 살아 돌아온 후 자신의 全節을 의심하는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sup>15)</sup> 적국에서 신하

14) 初五日叔兒女禮媛病死. 初九日仲兒子可喜病死. 兄弟擔負, 葬於水濱. 吾兄弟子女六人, 死於海水者三, 死於倭土者二, 所餘者只小女耳. 正山斗所謂致汝無辜惟我罪, 百年慙痛淚闌干者也. 傷憐之至, 却羨汝曹死而無知. -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15) 고국으로 돌아온 후 전절을 의심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박세인의 논문 「睡隱 姜沆의 시문학 연구 - 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7-45쪽) 참조.

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집했던 정보도 진정성을 의심받았고, 자신의 행동이 시비의 대상이 되자 강항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위축이 되었다. 강항은 순천교수를 제수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주변의 배척으로 향리로 내려왔으나 그곳에서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였다.

조선에 돌아온 후 劄節을 의심받았던 강항으로서는 일본에서 작성한 기록을 정리하면서 더욱 감정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자식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픔을 글로 썼더라도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는 최대한 신하로서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면모들을 지웠을 것이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신하로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감정을 최대한 감추었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 최소한의 감정표현 마저도 삭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제된 표현들 속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 자식들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가슴에 담았을 강항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신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치밀하게 기록하였고 개인적인 일은 감추었지만, 죽은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기록한 것을 통해, 이 아이들이 강항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명의 아이들 중 살아남은 한 아이는 아래 인용문에 나오는 여섯 살 난 강항의 딸로 추측된다. 이 살아남은 아이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어린 딸[小女]'이라고만 표현한 반면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식들과 조카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죽는 상황만큼 비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로로 잡혀가면서 겪었던 고통스런 상황에 대한 묘사도 「섭란사적」에 담겨 있다.

이튿날에 또 한 바다를 건너서 伊豫州의 長崎에 정박한 후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는데, 굶주림과 피곤함이 너무 심하여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넘어졌다. 어린 딸이 나이가 여섯 살이어서 제 힘으로 걷지 못하므로 아내와 장모님이 번갈아서 업었다. 업고서 내 하나를 건너다가 물 속에 쓰러지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였다.<sup>16)</sup>

위의 글은 伊豫州에 당도한 직후 이동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굶주림과 피곤함이 심하여 열 걸음에 아홉 번 넘어지고, 여섯 살 난 딸이 걷지 못하자 아내와 장모님이 번갈아 업고 가다 물 속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다. 어떠한 감정 표현도 없지만, 이 절제된 묘사를 통해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을 애절하게 느낄 수 있다.

정희득도 피랍 당시 가족과 함께 였고, 강항처럼 자식들과 이별하게 된다. 그런데 강항은 자식들이 죽어서 이별한 반면, 정희득은 왜적들이 늙은 아버지와 다섯 살·세 살의 어린 두 아들을 바닷가에 내려 놓아 헤어지게 된 것이었다. 실제 정희득의 자식들은 살아있었고, 정희득이 조선으로 돌아온 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정희득은 자식들이 살아 이별하여 강항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아이 생일이다. 생각하니 그놈이 이날 처음으로 어미 배에서 떨어졌더니, 이제는 부모를 잃고 어느 곳에서 외로이 헤매는가? 하늘 끝에서 죽고 삶을 알 길이 없구나. 지난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 꺾어질 듯하다.<sup>17)</sup>

16) 翌日又渡一海，泊伊豫州之長崎，舍船登陸，飢困已甚，十步九顛。小女年六歲不能自行，與妻及妻母更負。負渡一川，頓臥水中，無力不能起。 -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17) 次兒生日也。念渠今日，始離母胎，今失父母，何處孑子。天涯存沒，無路聞知。往事思來，



위는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1598년 10월 26일 일기의 전문이다. 둘째 아이의 생일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부모를 잃고 외로이 헤매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꺾어 질 것 같다고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 이 외에도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피랍 때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모습은 『월봉해상록』에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정희득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면, 강항은 절제된 표현 뒤의 먹먹함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게 한다. 신하로서 전절을 의심받아 개인적인 감정을 더욱 감출 수밖에 없었던 당시 강항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절제된 묘사는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중 『간양록』에서만 나타난다. 절제 뒤에 남는 오랜 여운은 『간양록』만의 묘미가 되고 있다.

#### 4. 감정표출 방법으로써 시의 활용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는 일기에는 자신이 썼던 글들이 삽입되기 쉽다. 노인의 『금계일기』에 시와 중국에서 쓴 崔歸文 전문이 글을 쓴 해당 일자 일기에 수록되어 것처럼, 『간양록』 중 일기체인 「섭란사적」에 시가 삽입되어 있다.<sup>18)</sup> 포로체험 당시의 감정을 토로한 시, 다른 사람의 부

我心如摧.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10月 26日.

18) 이체연은 '상황진술과 정감표출의 詩文 혼효'를 『간양록』의 서술구조와 특징 중 한

탁으로 지어 준 시 등 총 3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산문에서 억제했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살폈듯이 강항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치밀하게 기록하였으며, 일기체인 「섭란사적」에서 자신이 겪은 비극적인 경험을 절제하여 묘사하였다.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자식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감정 표현을 억제했던 강항은, 시에서 만큼은 감정을 표출하여 시를 통해 또 다른 문학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먼저 피랍 및 일본 이송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강항의 모습을 시를 통해 볼 수 있다.

- ① 何處竹枝詞 어디서 들려오는 죽지사 노래  
 三更月白時 밤조차 삼경인데 달도 하얗도다  
 隣船皆下淚 이웃 배가 모두 눈물짓는데  
 最濕楚臣衣 가장 젖은 건 초신의 옷이로다<sup>19)</sup>
- ② 滄海茫茫月欲沈 한 바다 아득아득 달조차 지러는데  
 淚和涼露濕羅衿 눈물이 이슬과 함께 옷깃을 적시누나  
 盈盈一水相思恨 넘실넘실한 이 수면 상사한들 어찌하리  
 牛女應知此夜心 견우 직녀 응당 이 밤 심정 알거로세<sup>20)</sup>

가지로 들면서, 『간양록』에 나오는 시들은 시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그 맛을 상실하기 쉽고, 산문과의 상호 관련성 아래서 그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한시와의 차이라고 하였다.(이채연, 「『看羊錄』의 實記文學의 特徵」, 『한국문학논총』13, 한국문학회, 1992, 19-21쪽) 본 장에서는 이 산문과 혼효된 시가 산문의 정보 기술·감정의 절제와 상대적으로 감정표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집중하였다.

19)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20)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위의 ①은 일본으로 끌려가던 중, 밤중에 옆 배에서 여자가 울다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지은 것이다. 깊은 밤 삼경에 달빛도 하얀데, 여인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강항의 마음이 짧은 글 속에 애처롭게 나타나고 있다.

② 또한 일본 이송 중의 시로, ①처럼 밤 중 달빛 아래 눈물을 흘리는 강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를 쓰기 전 강항의 첩이자 애생의 어머니가 다른 배를 타고 스쳐 지나갔다. 둘째 형수가 나가 애생의 어머니와 잠깐 대화를 하며 슬피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고, 이날부터 애생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다가 밥을 먹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강항이 지은 것이다. ①에서는 모르는 여인의 노래를 들었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②에서는 자신의 첩과 다시 스친 후 시를 지었기에 직녀와 이별한 경우에 자신의 처지를 이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나라를 위한 계책을 도모하는 충신이 아닌, 가족과 이별하고 적국으로 끌려가는 배 안에서 눈물 짓는 한 남자의 애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

강항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조선을 항상 걱정하였고, 조선의 승전을 듣고는 기쁨을 시로 표현하였다.

① 聞道王師至	소식을 듣자니 왕사가 와서
全湖半已平	호남의 반은 하마 평정됐다고
吾君無疾病	우리 임금 병환이나 없으시고
老父尙康寧	늙은 아버지 상기 강녕하신지
鯨海天威動	큰 바다에 천위 진동하자
蜂屯月暈成	적의 진엔 달무리 졌네
哀情聞吉語	슬픈 정 속에서 좋은 말 들어 보니

喜淚作河傾 기쁜 눈물 하수가 내리쏟는 듯<sup>21)</sup>

② 聽說凶鋒折 말 듣자니 흉적의 서슬이 꺾여  
 降書日日聞 항복서가 나날이 들어온다고  
 湖南空荐食 호남에는 약탈하는 일조차 없고  
 嶺外只孤軍 영남에는 다만 고군뿐이고  
 鯨浪清東海 동해에는 거센 파도 잠잠해지고  
 狼星拱北辰 천랑성은 북두성 끼고 있다고  
 孤臣雖萬死 외론 신하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白骨有餘欣 백골엔 즐거운 흔적 있으리<sup>22)</sup>

위의 ①은 1598년 1월 그믐 경에 명나라 군대가 이르러 울산의 일본군 절반이 죽고, 호남의 일본군 점령지도 순천만 남았다는 것을 듣고 지은 것이다. 여기에서 王師는 명나라 군대를 가리키는 말로, 명나라 군대로 인해 승전한 일을 듣고 시를 지은 것이다.<sup>23)</sup> ②의 시는 1598년 2월 5일 통역에게서 平義智의 部曲 백여 명이 귀순하고 나머지 항복하는 왜도 서로 잇따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지은 것이다. 감정 표현이 적은 강항이 위의 시에서 만큼은 승전에 대해서 ‘슬픈 정 속에서 좋은 말 들어 보니 / 기쁜 눈물 하수가 내리쏟는 듯’이라고 눈물을 쏟으며 기뻐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왜가 항복하는 것에 대해 ‘외론 신하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 백골엔 즐거운 흔적 있으리’ 라고 하여 죽음을 불사한 행복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적국인 일본에 억류된 상태에서 조선의 승전 소식을 듣고 시

21)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22)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23) 김미선, 앞의 책, 221쪽.

를 쓴 것은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에서도 볼 수 있다.

近聞天將建神功	요즘 들으매 천장이 신이한 공을 세워
嶺外妖氣一掃空	영남의 요사한 기운을 싹 쓸어 없앴다네
獨我孤蹤長夜裏	나만은 외로이 긴 밤 속을 헤매는데
故山煙月太平中	고향은 태평 속에 지내겠네 <sup>24)</sup>

강항과 정희득 두 사람 모두 승전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시를 지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강항이 임금과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후 기쁜 눈물이 하수가 내리 쏟는 듯하다고 강하게 기쁨을 표현한 반면, 정희득은 승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는커녕 외로운 자신의 처지만을 되새기고 있다. 감정 표현이 없었던 강항이 국가의 승전 소식에는 한시로 기쁨을 표현한 반면, 감정을 끊임없이 토로하는 정희득은 기쁨의 표현도 없이 자신의 처지만을 슬퍼하는 것이다.

장미경은 정희득의 시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동시대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한 정희득이 외부의 모든 상황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sup>25)</sup>고 하였는데, 승전의 소식에도 자신의 슬픔의 관점만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sup>26)</sup> 반면 강항은 자신의 슬픔은 최대한 감추고 나라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다,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억제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24)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因舌人聞天兵大捷倭奴北還>

25) 장미경,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 - 鄭希得을 중심으로 -」,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80-282쪽.

26) 김미선, 앞의 책, 221쪽.

일본에 있는 동안 조선의 선비들은 시를 써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게 된다. 강항뿐 아니라 정희득, 정호인 등도 시를 요청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항은 이 일본인에게 써 준 시를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十幅蠻牋陣陣清	맑은 바람 부쳐주는 열폭 만잔을
寄來深荷上人情	보내주는 스님 정이 감사하구려
偷生久值看天日	구차한 삶 하늘보기 부끄럽더니
從此甞城掩面行	이제부터 낮 가리고 다닐 수 있구려 <sup>27)</sup>

위의 시는 倭僧 照高院이 부채 열 자루를 보내면서 시를 청하여 왔기에 지은 것이다. 조고원은 일본 皇帝의 숙부라고 강항이 직접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승려가 아닌 권력이 있는 승려라 할 수 있다. 강항은 부채를 보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표현한 다음, 구차한 삶 하늘보기 부끄러웠는데 이 부채로 낮을 가리고 다닐 수 있다고 적국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은 죄책감으로도 연결되는데, 아래의 시를 통해서 적국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시름, 죄책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볼 수 있다.

滿臆千愁若蜜房	만 생각 천 시름이 벌집과 같은지라
年纔三十鬢如霜	나이 겨우 서른 살에 귀밑머리 하얗다니
豈綠鷄肋消魂骨	이 어찌 계륜이 혼 골을 녹여서라
端爲龍顏阻渺茫	진실로 용안을 못 뵈는 때문이야
平日讀書名義重	평일에 글을 읽어 명분 의리 중하지만

27)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後來觀史是非長    후일에 역사 보면 시비가 길거로세  
 浮生不是遼東鶴    부생이 저 요동의 천년 학 아닐진대  
 等死須看海上羊    죽을 바엔 해상의 양을 보자꾸나<sup>28)</sup>

강항 일행은 대마도를 경유하여 일본 伊豫州 大津城에 유치되었고, 후에 이에주보다 동쪽인 攝津州 大坂城으로 이송 되었으며, 다시 십진주보다도 더 동쪽인 山城州 伏見城으로 이송되었다. 위의 시는 1598년 9월에 대관성으로 강제로 이송되면서 배 안에서 지은 것이다.

만 가지 생각 천 가지 시름이 별집 같아서, 서른 살인데 귀밑머리가 희다는 첫 구절을 통해 조선과 더 먼 동쪽으로 이송되면서 더욱 괴로웠을 강항의 심정을 볼 수가 있다. 이어서 임금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는 처지와 자신의 생존이 후일 시비 거리가 될 것임을 표현한 후, 흥노에게 사신 갔다가 그들에게 억류돼 북해에서 양을 치며 19년을 살다가 한나라로 돌아온 蘇武의 고사를 이용하여 죽을 바에는 해상의 양을 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한시를 통해 슬픔, 그리움, 기쁨, 부끄러움 등 강항의 감정이 표출되었다. 「섭란사적」에 실린 31수의 시는 모두 제목이 없다. 그러나 일기 속에 한시가 삽입되어 있다 보니 어떠한 상황에서 시를 썼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는 일기에서조차 감정을 억제했던 강항이, 일기에 삽입한 시를 활용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간양록』의 표현적 특징 중 하나이다.

28)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 5. 맺음말

지금까지 『간양록』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먼저 수집된 정보를 치밀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항은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에 일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았는데, 이는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치밀한 기록으로 인해 『간양록』은 조선후기 실학자 등 문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다음으로 비극적 경험을 절제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항은 일본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록한 반면, 본인이 겪은 비극적 경험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긴 채 절제하여 묘사한다. 일기체로 쓴 개인적인 글인 「섭란사적」에서조차 감정을 절제하여,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황만 묘사할 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절제된 묘사를 통해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을 애절하게 느낄 수 있다. 절제된 표현 뒤에 남는 오랜 여운은 『간양록』만의 묘미가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표출 방법으로써 시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양록』 소재 다섯 편의 글 중 「섭란사적」에만 31수의 시가 실려 있다. 자식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감정 표현을 억제했던 강항은 시에서 만큼은 슬픔, 그리움, 기쁨,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여, 시를 통해 또 다른 문학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는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경득의 『만사록』,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정호인의 『정유피란기』 등 다섯 편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 강항의 『간양록』이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학자들이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



로, 본 연구자 또한 이번 논문을 통해 『간양록』을 살피면서 그 중요성과 문학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간양록』 외의 『수은집』 소재 작품에 대한 연구는 『간양록』에 대한 관심만큼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강항의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姜沆, 『睡隱集』, 《한국문집총간》 73  
鄭希得, 『月峯海上錄』, 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강항, 『간양록』, 《국역해행총재》 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정희득, 『해상록』, 《국역해행총재》 VIII, 민족문화추진회, 197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co.kr/>)
- 김미선, 「『看羊錄』의 여정에 따른 서술 방법」, 『도서문화』38, 목포대학교 도서관 문화연구소, 2011, 147-177쪽.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8-60쪽.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43-72, 149-157쪽, 221쪽.  
박균섭, 「姜沆이 日本 朱子學에 끼친 影響」, 『일본학보』37, 한국일본학회, 1996, 257-263쪽.  
박맹수, 「수는 강항이 일본 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 -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관 문화연구소, 2010, 50-57쪽.

- 박세인, 「睡隱 姜沆의 시문학 연구 - 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7-45쪽.
- 오상학,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대한지리학회지』38, 대한지리학회, 2003, 37쪽.
- 이동희, 「睡隱 姜沆의 愛國精神과 日本에의 朱子學 전파」, 『유학사상연구』12, 한국유교학회, 1999, 192-205쪽.
- 이채연, 「'看羊錄'의 實記文學的 特徵」, 『한국문학논총』13, 한국문학회, 1992, 19-21쪽.
- 임치균, 「'看羊錄' 연구 -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 『정신문화연구』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10-114쪽.
- 장미경,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 - 鄭希得을 중심으로 -」, 『한문교육연구』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80-282쪽.
- 최대우 · 안동교, 「姜沆의 衛道정신과 일본에서 유학전수」, 『호남문화연구』38,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212-224쪽.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 Ganyangnok Travelogue

Kim, Mi-Sun

This study examine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Ganyangnok, a representative travelogue on a foreign country by POW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t was found that the author recorded his gathered information in extreme details. Gang Hang, the author of the travelogue, contained a vast range of information about Japan in 『Jeokjungbongso』 and 『Jeokjungmungyeonnok』, and he recorded the details out of a sense of mission as a subject to the Joseon king. Ganyangnok was widely read by second-half Joseon Neo-Confucians and other literati, because the travelogue detailed information about Japan systematically and in detail.

Next, it was found that the travelogue described tragic experiences reservedly. Gang Hang detailed the information about Japan, while describing his personal tragic experience reservedly with his emotions hidden. Even 『Seopnansajeok』, a personal diary style, described the contents with his emotions reserved: for example, he described only the situation about the deaths of his children, but did not express his feelings. But, such reserved description makes the reader feel his pain at that time. Lingering feelings after the reserved expression add a unique style taste to Ganyangnok.

Lastly, it was found that his reserved emotions were expressed in poems. Among five writing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of Ganyangnok, 『Seopnansajeok』 alone ran 31 poems. Gang Hang, who reserved his sorrow feelings at the deaths of his children, revealed his sorrow, joy and shame feelings in poems, allowing the reader to have yet another literary emotions.

Key Word

Gang Hang, Ganyangnok, expression characteristics, detailed records, tragic experience, reserved description

▪ 논문투고일 : 2015.7.15    심사완료일 : 2015.8.14    게재결정일 : 2015.8.14